



변경 중학교의 등대 ... 33년 제자들의 앞길을 밝혀

— 전국 3·8 홍기수 김순교사의 눈물과 땀의 기록

길림성의 동남쪽 중조 변경, 압록강변에 위치한 장백현에서 33년간 교단을 굳건히 지키며 수많은 제자들의 인생을 바꿔준 교사가 있다. 그녀가 바로 장백조선족자치현조선족중학교 김순(56세)이다.

☞ 학교에선 ‘학생들의 어머니’, 자신의 딸에겐 ‘낯선 엄마’

“1995년에 저희 딸이 태어났습니다. 그해부터 연속 6년간 고중 3학년의 수업을 맡게 되었지요.” 그와 동시에 다른 학년의 담임교원도 맡았던 김순은 잠든 어린 딸을 등에 업고 학교 때문에 들어서는 것이 거의 일상으로 되었다.

“저희 출근시간과 유치원에서 문을 여는 시간이 한참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자는 애를 업고 학교에 나와야만 했습니다.”

김순은 아침 자습을 마치면 서둘러 딸을 유치원에 데려가고 다시 학교로 돌아와서는 곧바로 교단에 서야 했다.

문제는 유치원의 하교 시간이 중학교보다 일찍하다는 점이었다. 결국 그녀는 학급 학생들에게 도움을 청해 딸을 데려오게 해야만 했고 딸아이는 학급 학생들의 손에 맡겨져 오후 하교를 해야만 했다. 학교의 오후 일과가 끝나면 딸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고 급하게 자려 저녁을 먹인 뒤 다시 딸의 손을 잡고 학교로 향해야 했다.



▲ 기자의 취재를 받고 있는 김순교사

이러는거냐?’고 소리치며 딸을 혼냈죠.”

그러자 딸은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엄마는 한번도 내 곁에 있는 적이 없었고 대신 친구들이 날 지켜줬다!”며 대들었다.

이 말에 김순은 할 말을 잃었다. 다년간 담임교원을 맡으며 교실에선 항상 ‘학생들의 어머니’였지만 딸아이는 낯선 딸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것이다.

그날의 충격적인 말다툼과 눈물의

일찍 부모를 여의고 이모 집에서 자란 그는 고중에 입학하자 생활형편이 어려운 이모네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항상 돈을 벌 생각만 하고 있었다.

“수업중에도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만 생각하는 눈빛이 안타까웠습니다.”

김순은 이 학생의 상황을 파악하고 즉각 행동에 나섰다.

“초중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간다면 그 아이의 미래는 상상할 수조차 없겠죠.”

그래서 김순은 학교에 학비 지원을 신청했다. 한편 소식을 전해들은 장백현의 관련 지도자들도 지원금을 보내주었다. 부족한 부분은 김순이 직접 자신의 월급에서 채워넣었다.

“너는 이제 공부만 하면 된다. 앞으로의 삶이 달라질거야.” 김순은 친절하게 리모 학생을 고무격려해주었다.

김순의 꾸준한 지원과 관심은 3년 후 빛을 발했다.

“이 학생의 입시 성적을 알게 된 나는 그동안 쏟은 정성이 하나도 헛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학입시 성적이 나온 날 교무실에서 두 사람은 눈물로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었다.

중앙민족대학에 입학한 리모 학생은 대학의 특별장학금 지원으로 무사히 학업을 마치게 되었고 지금은 가정을 꾸리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다. 타지에 있다 보니 자주 고향에 찾아오지는 못하지만 명절이면 위챗으로 스승 김순

등 묵묵묵직한 영예칭호들을 수여받으며 주변에 많이 알려졌던 그녀의 사적이 이전 국가 차원의 인정을 받게 된 것이다.

그러나 김순은 자신의 노력에 대한 진정한 보상은 제자들의 대학입학 통지서라고 말한다.

2016년 그녀가 담임을 맡은 학급 39명 학생중 청화대학 1명, 북경대학 1명을 포함해 여러명의 학생이 북단대학, 중국인민대학 등 중점대학에 입학했다.

당시 주변의 친구들은 “장백현에서 이 기록은 깨질 수 없다.”며 더 이상 담임을 맡지 말라고 권했지만 학부들의 결정으로 3년 더 담임교원을 맡았다.

“아이들이 장백현을 벗어나 큰 세상에서 큰 꿈을 이룰 수 있게 하겠다는 생각이었어요.”

2019년, 김순은 3년전의 기록을 갱신하며 39명 학생중 북경대학 2명을 포함해 북경 소재 대학에만 13명을 보내는 쾌거를 이루었다.

“2016년 저희 학급의 구호는 ‘기적을 이뤄내자!’였는데 2019년에는 구호를 ‘기적을 초월하자’고 고쳐서 뒀죠. 결국은 다 실현했습니다.”

그녀의 눈부신 성적 뒤엔 죽음과 맞서 싸운 사연도 숨어있었다.

2010년 4월, 대학입시를 한달 남짓이 앞두고 건강검진에서 갑상선암 판정을 받은 김순은 결연히 수술 날짜를 미뤘다.

“아이들이 시험장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내가 있어줘야 한다는 생각을 했죠.”

입시 종료후 긴급수술을 받았지만 그녀는 목소리를 잃었다.

“수술후 아무리 소리를 내려고 안간힘을 다해도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 다. 할 수 없어 흑판에 글만 쓰고 음성이 없는 수업을 몇개월간 이어갔죠.” 소리 없이 진행되는 수업과 침묵 속에서 진행되는 일상 교류는 오히려 학생들의 학습 열정을 더 불러일으켰고 학급의 여러가지 일도 더 주동적으로 맡아나섰다고 한다. 때문에 그해 김순의 학급은 학교의 여러가지 평가에서 모두 앞자리를 차지했다.

“우리 학생들이 더 적극적으로 잘 따라주어 많은 시름이 놓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목소리도 서너달 만에 돌아왔습니다.”라고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김순의 이런 건지는 1988년 연변대학 지리학부에 입학해 새 학기마다 장백현에서 연길까지 이틀이나 가야 했던 험난한 경력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그때 장백에서 연길까지 이틀을 가야 했는데 일부 구간은 인적 없는 원시삼림이었습니다.” 마치 세상과 ‘고립’된 듯한 허무함에 느꼈지만 그녀는 만약에 내가 영광스러운 인민교사가 된다면 나의 학생들은 반드시 이런 ‘고립감’에서 벗어나 더 큰 세상에서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뽐내며 살게 하겠다는 생각이 굴뚝같이 들었다.

“나의 학생들을 반드시 큰 도시로 보내겠다.”는 신념과 “힘들었지만 행복한 순간이 더 많았다.”는 감개로 김순은 오늘도 여윌없이 교단에 올라 장백조선족자치현조선족중학교 제자들의 앞날을 활히 밝혀주는 ‘등대’가 된다.

/ 정현관 김명준 기자



1월 - 2월 제1자동차해방 판매량 4.8만대 돌파

최근, 제1자동차해방에 따르면 1월—2월 제1자동차해방의 판매량은 4.8만대를 돌파하여 전년 동기 대비 4% 성장했다. 국내 중중(中重)트럭시장 점유율은 25.9%에 달해 업종 순위가 제1위를 차지했는바 지속적으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1월—2월 제1자동차해방의 판매량 데이터를 살펴보면 견인차, 화물차, NG차 등 세분화된 분야에서 모두 선두를 유지했다. 특히 신에너지 완성차 판매량은 6,223대로 시장 단말기 점유율이 12.9%로 전년 동기 대비 211% 성장했다. 이는 제1자동차해방의 강력한 시장경쟁력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 기업이 신에너지 상용차 분야에서 기선을 제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올 들어 제1자동차해방의 제반

사업은 량호한 출발을 가져와 강력한 발전 추세를 보여주었다. 제1자동차해방 J7 완성차스마트공장은 공업정보화부의 첫집 탁월급 스마트공장에 선정되었는데 전국 상용차 완성차 분야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스마트공장이다. 냉석시대와 전략적 협력을 한층 더 심화하여 해방시대 신에너지과학기술유한회사를 공동으로 설립, 신에너지 상용차 시장을 확장했다. 상해중조(中重)와 손잡고 수백대의 수소에너지저장량 상업화운을 실현했는데 철강단지, 폴드체인 물류, 항구, 공업단지 등 응용장면을 포괄한다. 오스트리아 중계상과 성공적으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해외시장을 한층 더 개척하는 데서 튼튼한 한걸음을 내디뎠다.

/ 길림일보

만족스러운 소비환경 함께 구축하여 고품질 발전 추동

3월 15일, 길림성시장감독관리청과 길림성소비자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2025년 ‘3.15’ 국제소비자권의 날 ‘만족스러운 소비환경을 함께 구축하여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자’는 주제발표회가 장춘에서 있었다. 길림성은행업협회 등 16개 업종협회 대표와 호월우육 등 20여개 기업 대표가 회의에 참석했다.

발표회에서 길림성시장감독관리청은 2024년도 전 성 시장감독관리계통의 소비권의 수호 성과를 통보했다. 이와 동시에 기업, 업종협회 대표들이 경영주체 책임리행 승낙선언을 발표하여 소비자 권익을 공동으로 수호하려는 확고한 결심을 다졌다.

길림성소비자협회는 현장에서 2025년 업무계획을 공표했는데 겨울철 관광민박 감독체협고찰 결과운용, 길림특색선물(伴手礼) 체험관 건설, 클라우드 체험활동 기제 혁신, 지능315 플랫폼사용 보급, 직속련락소 건설 보완 등 조치가 포함된다.

소비권의 수호 업무에 대해 길림성시장감독관리청 관련 책임자는 다음

과 같이 말했다. 길림성시장감독관리청은 ‘만족스러운 소비환경 공동 구축’ 주제를 둘러싸고 <소비환경 최적화 3개년 행동방안>을 잘 실행해야 한다. 기업들은 주제책임을 짊어지고 ‘길림제조’, ‘갈림봉사’가 안심 소비의 황금간판으로 되도록 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권익수호 의식을 증강하고 <중화인민공화국소비자권익보호법> 등 법규를 깊이있게 료해하며 알권리, 공평거래권 등 핵심권익을 장악해야 한다. 사회각계는 합력을 결집하여 ‘정부주도, 기업자주, 업종자물, 사회감독, 소비자참여’의 권익수호의 큰 구도를 형성해야 한다.

회의에서는 또 길림성소비자협회가 새로 조직한 공익변호사단 대표, 의무감독원대 대표들에게 초빙증서를 수여하고 직속련락소 대표들에게 현판을 수여했다. 길림성소비자협회는 다음 단계에 ‘만족스러운 소비환경 공동 구축’을 주선으로 기제를 혁신하고 협동 련동하며 소비환경의 최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길림 경제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주입할 것이라고 전했다.

/ 길림일보

연길공항, 국제우편물 입항 업무 재개



3월 16일, 한국 서울에서 출발한 374키로그램의 국제우편물이 중국 남방항공 CZ6074 항공편을 통해 연길조양전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는 연길공항이 4년 만에 국제우편 입항 업무를 재개했음을 의미한다.

2021년부터 여러 요소로 인해 연길공항의 국제우편 운송 업무가 중단되었다. 연길공항은 국제화물 운송 업무를 하루빨리 재개하기 위해 연변주정부의 통괄적인 지도하에 연길시상무국, 연길세관 등 관련 부문과 협력해 전문사업업을 구성하고 국제우편물 관리 절차, 국제관리창고시설 등 관련 고리에 대한 체계적인 개조작업을 진행했다. 연변공항에서는 연변우정분회사와 손잡고 상시 협력 기제를 구축하고 판매 전략과 보장 절차를 적시에 조정하여 좋은 경영환경을 조성했다.

/ 김명화기자

‘연변 10경’ 공모, 독특한 자연풍경과 인문경관 찾습니다 [관련 기사 3편]